

Project

2021년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기획전시

기획전시

Project Exhibition I

PHOTO WALL PROJECT

Seomun Market Station Exit 1

포토월 프로젝트 - 서문시장역 1번 출구

2021년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는 With COVID-19 시 대에 대응하는 초대형 야외사진전을 기획했다. 일상 속 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서문시장역 교각'에서 시작하여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 병원', 근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청라언덕'을 지 나 '3.1운동 계단'에 이르는 길까지 이어진다. 대구를 모티브로 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업은 대구에 대한 다 층적인 시각을 보여 준다.

기획전시



Project Exhibition II

Heroes 2020

히어로즈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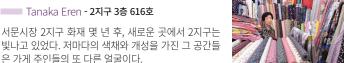
혼동과 고통이 뒤섞인 현장 속에서 COVID-19에 맞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봉사와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시이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 원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대구안전소방본부, 대구의사 회, 골든타임응급환자이송센터 등에서 직접 찍은 사진 으로 생생한 현장을 느껴보고자 한다.

Tanaka E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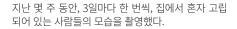
Tanaka Eren - 2지구 3층 616호

은 가게 주인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전시장소 **3호선 교각**



Julia Fullerton-Batten
- LOOKING OUT FROM WITHIN (2020)



빛과 어우러진 자연을 통해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

대인들에게 근원적인 에너지와 함께 신비로운 경험

Julia Fullerton-Batten, 이정록, 장용근



전시장소 **응급실 외벽**

권도연, Ádám Urbán

전시장소 **주차장 건물**

■2-1■ 권도연 - **북한산 (2019)**

주택가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개들이 산으로 들어갔다. 북한산으로 간 들개들을 2년간 사진으로 기록했다.



■3-3■ 장용근 **- 새부리가면**

을 선사하고자 한다.

■3-2■ 이정록 **- 산티아고 23**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 마스크. 페스트가 유행일 때 착용 했던 새부리가면처럼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새부리가면'의 오류를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



■2-2 Ádám Urbán - 유령도시

투자에 실패된 건물 구조의 일부만 남은 유령 도시. 콘크리트 몸통 아래에는 대출 은행의 돈뿐만 아니라 수십억 개의 건설 회사도 묻혀 있다.





4 장남원, 이정록

전시장소 응급실 외벽

■4-1■ 장남원 - Humpback Whale

숱한 난관과 까다로운 촬영 조건을 극복하고 탄생한 고래 사진을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 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길 바란다.



■4-2 이정록 - Luca 31

5 Szilvia Mucsy

전시장소 **건강증진센터 외벽**

Szilvia Mucsy - HOME

HOME은 서로 다른 집, 호텔 객실, 임시 숙박 시설에 대한 개인 다큐멘터리이다.



6 나현철

전시장소 **주차장 입구**

■■■ 나현철 **- 선사투시도**

대형 공사 현장에 있는 조감도와 투시도, 현재의 건축물이 언젠가는 선돌, 고인돌의 역할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붉은 벽돌과 공구 재료는 주거와 사유 재산의 의미를 강조한다.



7,8,9 김현수, 곽범석, 나현철, 이동욱, 윤정미, 장용근 Tanaka Eren, Julia Fullerton-Batten, Axel Braun

전시장소 **야외 주차장**

==== 김현수 **- 양화소록**

도심 속 잘 다듬어진 인위적인 형태를 통해 동시대 현대인들의 획일화된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



- 곽범석 **이상화 시리즈** □ 나현철 **선사투시도** □ 이동욱 Sense Of Guilt
- 윤정미 It Will Be A Better Day 장용근 새부리가면
- Tanaka Eren 2지구 3층 616호
- Julia Fullerton-Batten LOOKING OUT FROM WITHIN (2020)
- Axel Braun 불안한 조화 [인류세 풍경]

10 박창모, 김경란 외 72명 전시장소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구)어린이집

■10-1■ 박창모 **- 2020 봄**

다시 맞이할 평범한 일상의 봄날을 기약하며, 본인을 희생하면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코 로나19 의료진들의 희생정신을 담았다.



히어로즈 2020

10-2 김경란 외 72명 - **중환자실**

COVID-19에 맞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 진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시



전시장소 **목공실**

11 박민우, 노진규

■11-1■ 박민우 **- 대구 달성공원**

유제를 만들고 유리판에 도포하는 '유리건판 필름' 과 정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물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



■11-2■ 노진규 **- 역사초상 시리즈**

대구의 대표 인물 서상돈, 이상화, 이인성을 작업을 통해 소환 한다. 입체적이고 회화적이며 이미지에 생명력을 넣는 과정을 통해 인물들의 정신을 표현한다.



12 이동욱

전시장소 목공실

Sense Of Guilt

바비 인형들을 통해 사람들의 이중적인 시선과 심리를 지적 한다.



3 장남원 - Humpback Whale (*라이트박스)

전시장소 **선교사주택**

14 Axel Braun

전시장소 **선교사주택**

Axel Braun - 불안한 조화 [인류세 풍경]

인프라 프로젝트와 위협받는 생태계의 역사에 대한 사례 연구 모음으로 구성된다.



15 나현철 - 선사투시도 (*라이트박스)

전시장소 **의료선교박물관**

전시장소 **의료선교박물관**

권현진

■ 권현진 - Visual Poetry (*라이트박스)

자연의 내용을 비워가는 추상화가 아니라 그 역의 맥락에서 융합과 혼성에 의한 추상 이미지가 다루어진다.



이정록 - Luca 02 (*라이트박스)

■ 윤정미 - It Will Be A Better Day

전시장소 **청라언덕** 전시장소 **청라언덕**

윤정미

192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한국 단편 소설(이번 전 시는 현진건 작가의 소설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에 나오는 장면들을 작가가 재해석한 연출 사진이다.



Wang, Hsiao-Ching, 곽범석

전시장소 **청라언덕**

19-1 Wang, Hsiao-Ching - The Mother as a Creator

2000년에 임신 이후로 어머니가 되는 동안 감각을 유지하 기 위해 예술 창작을 시도했다.



■19-2■ 곽범석 **- 이상화 시리즈**

이상화의 시는 저항적 시대정신과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낭만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절망에서 오는 어둡 고 우울한 느낌과 희망이나 아름다운 느낌 등의 복합적인 시적 분위기를 이미지화한다.



장용근 -새부리가면 (*라이트박스)

전시장소 **청라언덕**

21 이계영

전시장소 3.1운동계단길

실제로 가 보지 않았던 풍경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기억 장치에 저장되고 익숙함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한다.

